

이홍재의 세상만사

40년 정든 연인과 ‘막 헤어졌다’고 전해라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 올해가 작년이 되고 내년이 올해가 되는 날은, 이제 채 반상(半朔: 한 달의 절반)도 남지 않았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순살같다’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계절이다. 문득 ‘앞으로 살아 갈 날이 이제 몇 살아 온 날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게 언제부터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생 백세’를 산다 해도, ‘백세 인생’이란 노래가 떠오른다. 대화창에 오고 가는 ‘질방’[질방 방지를 위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25년 무명가수였던 이 애란(52)을 스타로 만든 노래다. 이 노래는 가락도 구수하지만 재미있는 가사까지 나이에 걸맞은 무게를 띠고 있다.

“육십 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칠십 세엔 ‘할 일이 아직 남아’, 팔십 세엔 ‘아직은 쓸 만해서’... 이런 식으로 백세까지 이어진다. 노래가 뜨면서 ‘~한다고 전해라’의 온갖 패러

디도 온라인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장 이 회식 자리에서 날 왔으려 오거든 피곤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교수님이 과제 빨리 내라 하거든 재촉 말라고 전해라”, “직장 상사가 왜 출근 안 하냐고 묻거든 오늘 아파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식이다.

패러디(parody)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자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게 패러디다. 율연초에 카툰으로 받았던 ‘해설이 딸린 패러디’ 역시 지금 또 읽어 봐도 슬며시 미소를 짓게 한다.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자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게 패러디다. 율연초에 카툰으로 받았던 ‘해설이 딸린 패러디’ 역시 지금 또 읽어 봐도 슬며시 미소를 짓게 한다.

아직도 많이 생각 하지만

“면세 담뵐값이 싸게도 보이냐/ 유자 아니라고 품음직도 하디마는/ 품어가 해(害) 뭘세라 그를 두러워하노라”

【해설】노계 박인로의 ‘반중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나다’를 패러디한 시조. 때는 2015년 초, 담뵐값이 막 두 배 가까이 올랐던 시기. 작가는 제주도 여행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발견했다. 시중에 비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싼 담뵐을 사고자 늘어난 애연가들. 비행기표 한 장당 한 보루씩만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엔, 어린 아들·딸들의 탐승권까지 가져와 한 보루라도 더 사 보러 애쓰는 이들의 모습이 애처

롭다.

허를 끝까지 차며 이를 지켜보던 작가는 문득 애연가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 결국 한심하게만 생각했던 그 길고 긴 줄에 합류하게 된 작가는 곧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효도인가? 날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아버지께 만병의 근원인 담뵐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육적(陸績)이 품은 것은 건강에 좋은 유자였고 박인로(朴仁老) 역시 맛있는 홍시였는데 내가 품은 것은 백해무익한 담뵐. 비록 지금은 날 반겨 주실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가 품어 간 이걸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를 겪게 된다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리석은 자신의 소행에 대해 자괴감을 금하지 못하던 작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 시조다.

면세점에서 사 온 한 보루의 담뵐을 받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막 이것만 피우고 좋겠노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심망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어느덧 또 다시 1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를 맞는다.

아버지는 병신년 새해가 되기 전에 아לו로부터 잃어버린 심망을 회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40여 년을 함께했던 이 다정한 연인과 이별해야말로 반드시 헤어져야겠다고 독하게 맘을 먹었다. 그리고

어렵게 결별을 통보한 게 지난달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11월26일)이었다. 그렇게 헤어진 뒤 그리워 한 달 가까이 견뎌 온 셈인데, 많이 힘들고, 아직도 많이 그립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쓰면서는 더욱 괴롭기 짝이 없다.

젠만한 여자의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 편이지만 하루 20년 이상 다가오는 이 달콤한 유혹만은 참으로 뿌리치지 힘들다. 혈연·지연·학연과 함께 ‘인생의 4대 인연’이라 할 흡연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끊었으니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참자 그래 막 10년간 참자

요즘엔 ‘담배 끊은 놈이 독한 놈이 아니라, 담배를 아직도 피우고 있는 놈이 독한 놈’이라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 금연이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는 금연의 어려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담배를 끊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나는 백 번도 넘게 끊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작심삼일(作心三日)은 동서양이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금연에 한번 실패했다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은 아니다. 백 번도 넘게 끊고 또 끊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날도 오지 않겠는가.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애연가들이 또 금연을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쉽게 끊을 수

있을까? 여기 성공 사례가 하나 있으니 주인공은 이시종 총부 도지사다. 그는 40년간 하루 두 갑씩을 피워 대던 골초였다. 금연학교를 다녀 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막 끊었는데 비결은 간단했다.

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흡연을 잠시 중단하기로 맘먹은 것이다. 10년만 참기로 했다고 한다. 신기했다. 언젠가는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이 금연을 가능하게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다. 내년이면 이 지사는 스스로 정한 이 금연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부러워. 난 10년을 채우려면 9년11개월이나 남았는데..

머리가 미련한 탓에 한 권의 책을 수만 번씩 읽은 끝에 59세가 되어서야 과거에 급제한 조선시대 선비 김득신은 자신의 묘갈명(墓碣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학문에 힘쓰는 자는/ 재주가 다른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선(한계)을 긋지 말라.(勉學者無以才不猶人自畫也) / 이 세상에 나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나는 결국 이루었다.(莫傷於我 終亦有成)”

이제 글을 마무리할 차례다. 패러디로 글을 시작했으니 패러디로 끝내야겠다. “금연에 힘쓰는 자는/ 의지가 다른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선을 긋지 말라”

〈주필〉

‘셀 코리아’ 우려 ... 정부, 시장 안정화 나설 듯

美 기준금리 인상 ... 여파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고금리를 좇아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일단 외환보유액과 경상흑자 등 지표가 견고한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시시때때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이미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의 폭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가지지 않는 ‘셀 코리아’ 자본유출 우려=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중국 시장에 유입됐던 자본이 유출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고금리와 안전자산에 쏠리는 외국인의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경제 전반이 휘청일 수도 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신흥국 자본 유출 발생 수출 등 불확실성 여전

만금 외국인 자금 이탈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최근 ‘팔자’로 돌아서면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빨라진다면 글로벌 시장이 받을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고, 신흥국 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부 ‘시장 안정화 카드’ 바로 빼들 준비=정부와 금융당국은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등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실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현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합동시장점검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당장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과 대내 건전성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돼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연준의 금리전망 등을 감

안하면 과거 1994년이나 2004년 인상 때보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신흥국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하면 미국 성장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도 직간접적 여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금융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달러 강제가 심해지면 변동성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외환·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 유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로 정책을 바꾼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유출은 한국보다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연협뉴스



보성 어민들이 뱀배를 이용해 꼬막을 잡고 있다.

美 탄저균 실험 한국서 15차례 “올 처음” 주장 거짓

별교 꼬막 ‘뱀배’ 국가 중요어업유산 됐다

‘별교 꼬막’을 채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뱀배’가 해양수산부 국가 중요어업유산 2호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17일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해녀어업(1호)에 이어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일원의 뱀배어업, 마자막으로 경남 남해 ‘죽방렴 어업(3호)’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는 전통 어업 자원을 발굴, 보존·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도입했다.

보성 뱀배어업은 말이 빠지기 쉬운 뱀배에서 이동과 채취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뱀배를 사용해 꼬막을 잡는 어업이다. 1451년 ‘고려사’에 ‘강요주(江瑤珠)’라는 기록이 있으며 1481년 ‘동국여지승람’에 꼬막이 보성 특산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500여 년 이상의 전통어업으로 추정된다.

뱀배 어업이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뱀배어업을 통해 꼬막을 채취해 수익을 공동 배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주한미군이 그동안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또 지난 4월 사군화된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패스트균 검사용 표본이 함께 들어온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양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군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이들 실험은 용산기지 내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병원은 없어졌다. 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경/즐거움의 광경! U-square

수비드[sous-vide] 딱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특별한 분위기, 특별한 맛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식	12,500원	8,500원	5,000원
월식, 특월식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딱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행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치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HNAVER 백색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